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を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第一回 海外韓国教会神学会議

10月初에 天城山莊서

巡礼者神学(北美)

「나그네」神学(日本)등 모색

總會主催의 第一回海外韓國人教會神學會議가 오는十月三日부터 六日까지 靜岡・天城山莊에서 開會된다. 이會議에는 北美 아세아 各나라에서 代表가 出席할 予定이다. 北美에서는 移民神學의 學者로 著名하여 移民神學을 發題하게 된다. 海外에 散居해 있는 同胞들이 한자리에 모여 神學會議를 開하는 機會이기도 하며 北美은 물론 本國教會도 큰 関心을 갖고 있다.

오는 十月에 開會될 海外韓國人教會神學會議는 主로 日本에 있는 七十萬同胞와 美國의 八十萬同胞에게 福音의 말씀을 傳하며 그들에게 삶의 眞理를 주고 있는 教會가 世代的 交替에 따라 教會의 使命을 神學적으로 確立하기 위한 作業으로 세 모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神學會議에서는 二・三世教育問題 文化的 適應의 克服, 同胞의 生活權問題 및 在留權問題들을 分科別로 討議하게 될 것이다.

神學이라 하면 우리는 西歐神學을 생각하며 이것만을 神學으로 傳統神學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黑人神學, 移民神學, 形成에 關한 神學이 發展하고 있다. 第三世界에서는 韓國의 民衆神學을 비롯 台灣, 타이에서 그들도 神學을 發展하고 있다.

美國에서 移民神學形成에 關한 神學을 發展하고 있는 神學博士(프린스턴神學大學, 組織神學教授)인 「만민」의 神學으로 發展되어 오던 西歐神學도 白人들의 種族의 背景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主張하며 「바로 트루스, 불르트란트, 킬리히」의 神學이 다 種族을 超越하는 神學이 있는 동시에 「自己의 特殊한 形像 가운데서 發展한 神學이라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君植 天城山莊에서 모이는 神學會議의 目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日本帝國主義의 殖民地支配 아래(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나그네」(出稼)인 것이 「나그네」에서 約束한 가나안에서 어가도 못하고 「광야」에서의 四十年」이 있은 아담도 이 땅에 남아 있는 七十萬을 통하여 「나그네」에서 어떤 目的을 가지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그네」의 眞理를 發見하는 「제일 한국인의 삶과 歷史가 되도록 整理하는 것이 우리神學의 作業인 줄로 안다」.

移民神學 學者인 이상현博士는 美國에 移民한 韓國人을 「周邊人間」 혹은 「변두리人間」이라 定義를 내리면서 白人社會에서 歡迎받지도 못하고 오지러 社會의 中心에서 변두리로 쫓겨나는 변두리人間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周邊人生活」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聖스러운 使命이라 고 우리는 「나그네」 하겠다」고 그는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이 世界神學의 흐름을 把握하고 있다.

大阪教会서 特別集会

金浩植牧師를 강사로

이 白人神學에서 탈피하여 「自己」의 特殊한 形像에 「나그네」의 眞理를 發見하는 神學을 하는 作業에 責任을 負하고 있는 責任을 負하고 있다.

이 北美國에서는 큰 関心을 갖고 出席하겠다는 學者 牧師들이 登錄을 하고 있다.



李慧仙先生



金浩植牧師

集會를 七月八日(日) 午前과 午後 두번 가졌다.

講師인 金浩植牧師(서울香隣教會)와 獨唱인 李慧仙先生(聖心女子大助教授)이었다.

李慧仙先生은 詩篇(三篇) 외 고과, 봉선화, 아리랑 등 韓國의 歌曲과 民謡로 모인 信徒의 마음에 깊은 感動을 불러일으켰다. 合唱도 大阪教會聖歌隊도 協力했다.

大阪教會에 앞서 京都南部教會에서도 特別集會를 六月三十日과 七月一日 가졌다. 많은 恩惠를 받았다. 七月十五日(日)에는 關東地方會連道部主催로 東京教會서 集會를 가졌다.

修養會案内

◎ 教授者・長老

夏期修養會

主題 主와 함께 일하는 教會

副題 教會가 復興하려면

講師 安雲雲牧師(全北禮里新光教會, 敬(統合)前總會長)

聖研 田約 金榮植牧師(北

部教會) 新約 金德化牧師(京

都南部教會)

日時 八月七日・九日

場所 有馬溫泉・ロイヤルホテル

テ

◎ 全協修養會

主題 時代的 使命을 擔우키

講師 崔昌華牧師

日時 八月十三・十六日

場所 琵琶湖・高島惠美壽莊

韓國NCC서 指紋拒否

運動위해 百万名署名전개

韓國基督教協會(會長 金允植牧師)는 在日韓國人法의 地位向上을 指紋捺印拒否支援을 위한 百万名署名運動을 七月부터 十月까지 展開하겠다고 지난七月一日 發表했다.

金昭植總務는 記者會見가운데서 「在日同胞들이 生活居住就業 教育權을 社會生活의 別待遇를 받고 있다고 強調한 「在日韓國人」의 民族性 保存에 이의는 基本人權保障을 위해 特別히 非人道的이고 非人道的인 指紋捺印制度의 撤廢를 日本政府에 要求키 위해 署名運動을 벌이겠다고 百万名署名運動의 동기를 밝혔다.

다음은 全國教會 諸團體에 보낸 성명서이다.

「日本에서는 現在 約七十萬에 달하는 韓國인이 살고 있다. 그들은 日本帝國主義가 韓半島를 侵略하여 三六十年間에 걸쳐 不當한 支配를 繼續하는 동안 強제로 日本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生活을 위해 부득이 日本으로 건너간 韓國人들과 그들의 後裔이므로 그들의 滯留는 그들自身的의 自由意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日本에서는 우리同胞들을 生活權, 居住權, 就業權, 教育權等 社會生活의 別待遇를 받고 있다. 日本政府의 外國人登錄法에 依하면 日本에 居住하는 外國人은 모두 指紋을 捺하

여 登錄하게 되어 있다. 韓國基督教協會會議는 一九八二年二月總會에서 在日韓國人問題委員會를 設置하고 日本基督教協會와 共同努力으로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會議을 가졌다.

이런 맥락에서 本協會의 在日韓國人問題委員會는 在日韓國人의 民族性의 保存과 그들의 基本人權을 保障하도록 要求하고 特別히 非人道的인 指紋捺印制度의 撤廢를 日本政府에 要求하는 署名運動을 展開하기로 決議하였다.

그具體的 方法으로 모든 敎인들이 署名運動에 參與하고 또 이署名運動을 위하여 敎會別, 地域別, 女性, 青年, 學

강남악 할머니 혼자서
800名署名모아八百의署名을 모은
姜南岳 할머니

生團體單位로 자원봉사자의奉仕活動으로 이署名運動이 成功되어 少數民族으로 差別을 받는 우리同胞들을 도와줌으로써 民族精神을 잃지 않고 眞正하게 살아가도록 激勵하는 意義에 韓國敎會가 積極적으로 參與하기를 바란다.

在日大韓基督教總會(總會長 洪永其牧師)와 日本基督教團(議長 後宮俊夫牧師)는 宣敎協約을 批准한데 이어 具體的인 活動으로 指紋捺印撤廢를 위한 運動으로 五十萬署名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지난 六月十日에는 洪永其總會長과 後宮俊夫議長이 大阪에서 金君植總務와 中嶋正昭總幹事들이 東京・數寄屋橋에서 署名運動을 展開했다.

이와같은 運動에 呼應하여 한 할머니가 八百名의 署名을 모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八百名의 署名을 모은 한 할머니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戶別訪問, 立花駅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알음지음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호소하여 단시일내에 八百名 署名을 모은 것이다.

武庫川教會에서 하는 어머니學校(校長 洪永其牧師)는 五年前에 設立, 現在 在籍敎徒는 十八名이며 보란타하로서 둘은 先生은 六十名이다.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教會 長老)〒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名古屋<52>431-3156(代)

尾頭センター 株式会社

名古屋市中川区尾頭橋通2-16
電話(052)331-1222~3番代表者 金 京 秋
自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話(06)981-2980番代表者 姜 南 中
自宅 大阪市東成区東今里2-2-8
電話(06)976-4937番

食肉加工・惣菜製造・食品輸入

株式 高山食品

名誉会長 元 洪 植 (福岡教會長老)
代表取締役 元 昭 三 (福岡教會執事)本社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26
〒816 電話(092)461-0055(代)
営業所 神戸市中央区国香通4-1-2新大国ビル702
〒651 電話(078)242-4018

東京信濃町教会舉行



長老(西新井教會)의 聖經奉 讀(출애굽三十一-十四), 慶忠重牧師(品川教會)의 說 敎題目: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가 있었다. 柳尚熙長老 (東京信濃町教會)의 敎會沿革 및 委任받은 鄭然元牧師의 紹 介가 있었다. 地方會長 高完 品牧師(東京第一教會)의 司式 아래 誓約과 宣言이 있었다 李仁夏牧師(川崎教會)가 牧師 에게, 李永欽長老(横浜教會) 가 敎友에게 各各 勸勉이 있 은후 吳元吉牧師(東京敎會元 老牧師), 康恩弘牧師(浦和伝道 所), 楊信錫牧師(大韓會)敎長	長老會(學生キリスト敎友愛會)理事長 의 感銘을 받은 祝辭가 있었다. 吳英元勸師(東京信濃町教會) 의 祝詩, 女伝道會의 祝歌들이 있었고, 鄭然元牧師의 答 辭, 李炯坡長老의 인사가 있 은후 鄭然元牧師의 祝禱로委 任札拜를 마쳤다.	東京信濃町教會는 一九七二 年 東京韓國國際敎會로 出發 一九八三年 十月 第三七回定 期總會에서 總會에 加入하고 敎會名稱도 東京信濃町教會로 改名했다.	委任받은 鄭然元牧師는 一
--	--	--	---------------

大韓에 수교長老會를 安教會로
道師로 봉직한 후 一九八三年
十月에 大韓에 수교長老會를 釜山
東老會에서 牧師按手를 받고
日本宣教師로 派遣받았다。

서울 Y서
開催

案内

金桂興牧師

金桂吳牧師의 委任式이 昨
 日 六月二四日(日) 岐阜教會에
 서 中部地方會의 信徒들 百
 五十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엄
 숙히 舉行됐다.

臨時堂會長 鄭永吉牧師의司
 會 아래 李聖南牧師의祈禱 司
 會者의 聖經奉誦(요한三十七
 三十七) 金君植總務의 說教善
 한(牧者)가 있었었다.

地方會長 黃義生牧師의 司
 式 아래 委任받은 金牧師에게
 誓約이 있은후 委任牧師의
 宣布가 있었었다. 委任받은 牧
 에게 朴永昌牧師(大垣教會)
 가 岐阜教會信者에게 徐又存
 長老(名古屋教會)가 勸勉하
 였다.

祝辭는 金允植牧師(韓國教
 會協議會會長)와 松村重雄牧
 師(敎團蘇原教會)가 했으며
 松村牧師는 韓國語로 祝辭하
 여 金은 感銘을 주었다.

委任받은 金桂吳牧師의 任
 사가 있은후 祝禱로 委任礼
 拜을 마쳤다.

委任받은 金桂吳牧師는 品

서울 Y서 開催

第四回 韓日基督教教育協議
會가 六月八日(金)十一日(明)까지 서울 Y M C A 會에서 열렸다.

韓日兩國의 基督教教育 發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協議會에는 日本側 十一名을 포함 總八十餘名이參加한 가운데「다음 세대를위한 기독교 교육」이란 主題로 基督教教育의 方向을 모색하였다.

첫날에 있었던 主題講演에서 日本基督教團 教育委員會委員長이며 日本基督教協議會(NCCJ) 教育部理事인 大下幸恵女史는「福音을 社會한 가운데서 말하는 教育」이라는 主題를 통해서 現在의 日本社會는 財界, 官界 그리고 政界가 協力하여 이루어내는 構造를 갖고 있다고 前提, 民主主義의 總動員體制를 實現시키 今般으로써 社會의 形勢이 아닌 大衆의 로그램의 開放性과 有效性이 要求되어왔다고 말하고 今日의 敎會靑年의 問題는 社會變化와 國際化, 科學時代에 있어서 個人이 어떻게 適應해야 하는가 敎會는 變化를 두려워하지않은 人物 靈과 肉 이 分離되지않은 生의 教育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날에는 兩國의 기독교 교육 現況報告가 있었다. 報告主主題는「基督教教育 教材에 反映된 靑少年問題 및 平和問題」였다. 分科討論에서는 學校分科, 敎會教育分科, 社會教育分科등 三分科로 나누어 基督教教育의 現況과 將來의 展望에 대해서 3시간 討論을 했다.

十日에는 日本側 代表들은 各敎會에 礼拝出席하여 敎會學校를 視察하여 韓國敎會의 生動하는 모습을 見聞하고三泊四日間の 協議會를 마쳤다. 우리總會에서는 日本基督教

지금까지는 敎派別로 讚頌歌를 出版, 使用했으나 宣敎百周年이란 뜻있는 해를 맞이해 全敎派가 하나가 돼 하나의 讚頌歌를 出版했다. 우리의 總會는 七月二十二日(日)부터 使用하기로 決定했다.

◎ 各種獻金

1. 어머니主日 五月十三日(日) 使用目的
 - ① 開拓道協力과 援助
 - ② 指導者養成에 獻身者援助
 - ③ 母國敎會传道事業後援
 - ④ 全國 및 地方研修會補助 獻金을 모내실곳
2. 青年主日
 - ① 全協夏期修養會補助
 - ② 全國高校生夏期學校補助
 - ③ 青年指導者養成을 위해
 - ④ 青年會特別传道集會費用
3. 어린이主日
 - ① 어린이主日 七月十五日

尹宗銀牧師

年五月 美國 텍사스 나조빌 크리
스찬 대학에서 神學博士學位을
취득。
一九五八年第十一回定期總會
에서 牧師按手를 받았으며,
広島教會, 西宮教會, 堺教會.
에 牧會를 했고 總會長(第三
三五回總會)도 역임했다.

L、A서牧會하기 위해

鄭永吉牧師

基督敎大韓監理敎 派遣宣敎
 師인 鄭永吉牧師가 七月九日
 서울을 經由하여 渡美했다.
 中部地方會館崎敎會會 尹준
 히 牧會해온 鄭牧師는 宣敎
 師의 任期滿了와 家庭事情으로
 渡美케 됐다면서 아직도
 다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
 쉬움을 안고 떠나게 된다는

岡崎教會는 七月八日 鄭永
吉牧師의 送別礼拜를 하명성
집사의 司會 아래 가졌다. 金
光洙長老(名古屋教會)의 祈
禱, 名古屋教會聖歌隊의 讚揚
李聖雨牧師(豊橋教會)의 說
教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가 있었으며 이태화집사, 黃
義生牧師(地方會長), 金君植慚
務의 送別辭가 있었다.
이영하, 金宗애兩氏가 教會
를 대표하여 꽃다발을 증정
했다.
鄭永吉牧師의 答辭가 있은
후 鄭牧師의 祝禱로 送別礼

Rev. Chung Young-Gil
Korean Central Unit-
ed Methodist Church
420 East 20th St.
Los Angeles Ca. 90011
(211) 747-4209

고 말했다.

韓國側 主題講演은 啓明大學神學科長인 최성찬教授에 의한 「젊은世代의 오늘날의 현주 소」란 主題로 강연하였다. 現任찬교수는 강연을 통해 現在의 젊은이의特徵은 無關心, 無氣力, 無責任을 十三의 無가 있다고 前提하고 學生人口 增加는 理念의 變化를 가져오고 價值觀의 差에서 오는 靑少年의 犯罪의 現象이 노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學問分野의 多樣化와 함께 變化해왔음으로 教育프로

わたしの
歩んだ現代

飯沼二郎
市民運動を通し初めて見えてきた、現代日本の全
定価一五〇〇円 体像を浮き彫りにする。

見えない人々
在日朝鮮人

飯沼二郎著 過去35年の朝鮮支配と、戦後の
差別と抑圧の実態を鋭く抉る。 ●一五〇〇円

泉への招待

三浦綾子
神への信頼を語る愛と祈
りの言葉。 ●一二〇〇円

東京・新宿・西早稲田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 03-204-0422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14年間継続中)
大阪国際航空全機内食果実納品
代表者 禹 永 吉
(武庫川教会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濟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 昌 鎬
(東京教会 按手執事)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丁目
6番4号 ホワイトビル
電話 (03) 633-7477 (代表)

＜手造り18年の実績＞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建設業者許可番号大阪府知事(般54)第19580
宅建免許番号大阪府知事⑥第6014


三喜建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鄭 且 聲
(大阪教会長老)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

(KCPチェン・エアポートイワイ)

◇기고◇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성장을 위하여 ②

韓 在 秀 牧 師

目標設定에 關하여 敎會成
長學의 權威者인 C·P와 그
敎授는 十年에 10%成長되
면 健全하다고 했다. 저의 생
애도 이標準이 在日大韓敎會
에도 適用하다고 생각됩니다.
一年에 10%는 너무 적다고
하는분도 계실줄이나 過去의
成長率을 參考하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一九五八年부터 宣敎七十周
年인 一九七八년까지 二十年
間에 洗禮敎人을 標準으로 보
면 一九五八年에 一千四百二
名, 一九七八년에 二千二百七
十五名으로 二十年間에 八百
七十三名增加이며 過去에 一
히 말하는 倍加運動(一年에
100%增加)은 우리 在日大韓敎
會形便에는 適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三、敎會成長의 대가
敎會成長을 위해서는 먼저
牧師가 堅固한 信念을 가져
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
충족이며 信者들이 또한 敎
會成長에 대한 熱望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牧
師와 信者가 敎會成長을 真心
으로 願하여 理想的인 높은
目標을 設定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成長이 自動的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
니다. 즉 敎會成長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대가를 支拂
해야 되는 것입니다.

敎會成長을 위해서 牧師와
信者들이 支拂해야 되는 대가
를 와 그敎授의 講義에 準
하여 紹介하면서 在日大韓敎
會形便을 考察하므로 敎會成
長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를 바랍니다.

四、牧師가 支拂할 代價
①牧師가 수고와 努力을 아
끼지 않고 支拂할 것.
큰 敎會나 작은 敎會나 健全
한 敎會成長의 標準인 十年
에 100% 成長을 위해서는 牧
師가 全精力을 소모하여야 된
다는 것입니다. 美國에서 福音
터배사가 五千명의 牧師를 對
象으로 調査한結果 半以上の
牧師는 傳道와 敎會成長에 熱
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
니다. (당후 二·三)

③牧師가 訓練받은 平信徒
에게 指導者役을 맡기면 敎會
成長을 위해서 牧師의 強力한
指導力이 必要한 것은 勿論이지만 그러나 牧
師 혼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敎會成長을
위해서 이指導役의 役割을 分擔
이 바로 支拂해야 할 代價의
一部分인 것입니다. 牧師가 自任해야
하는 것입니다.

牧師中에는 이것을 秩序問
題와 또는 權限이 생기는 二種
의 問題가 있습니다. 實踐을 行하
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을 敎
會成長을 위해서 好로운 것
입니다.

이것에 關하여 田約에서 具
體的이며 適切한例를 示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성을 애급에서 引導하여 廣
野에서 四十年 동안 引導하는
中 그 자인 이드로의 子세
론을 勸勉을 모세가 勸誘한
사실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모
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의 하는 것이 善
치 못하다」(出十八·十七)라고
지적하였읍니다. 둘째로 그 善
치 못한 理由로 「그대와 그대
와 함께한 衆성이 靑년 氣力
이 쇠하니 이 일을 이대에
게 너 무중함이라」(出十八·十
八) 그래서 세세로 具體的인
方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는 그들에게 律法과 法度
를 가르쳐 주고 또 衆성 가운데
에서 재단이 健全한 자를 골라
나를 두려워하며 眞心으로
하며 不義한 일을 미워하는 자
를 뽑아 백성 위에 세워 全부
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
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
가 모든 일을 잘 보고 곧 實踐하
여 그대 일을 여러 사람이 代
리하여 하도록 하라」(出十八·
二十一·二十二) 모세는 그
모든 말을 잘 듣고 곧 實踐하
여 그대 일을 여러 사람이 代
리하여 하도록 하라」(出十八·
二十一·二十二) 모세는 그

アメリカ見聞記 ①

姜 榮 一 牧 師

在米韓國人

私が、最初に落ちついたところ
は、アラバマ州ガーズデン市
であった。ガーズデンは、アメ

リカ南部の田舎町で、アトラン
タ(ガーズデンで一番近い大都
市)の人もガーズデンというこ
ころはほとんど知っていないか
つた。

学校もガーズデン市内から離
れていて、一番近くのスーパー
までは歩いて二十分はかかった
歩くという発想そのものは、日
本的で、自動車があれば一步
も出られないところであった。パ
スも電車もなく、最初は寮と食
堂と教室だけを通過生活であつ
た。

アメリカの南部の田舎町には
韓国人も日本人もいないだろう
と思つた。そこでしばらくは言
葉で苦労すると思ひ、心の中
では不安であつた。しかしここ
は英語に慣れると思ひ、貴重な
時間を有意義に使うと心にきめ
ていた。しかし、学校について
おどろいたことには、外国人学
生約三十名中、日本人が約十四
五人、在日韓国人も私を含めて
二人であつた。

ガーズデンに着いた翌日、隣
りの市に住んでいる韓国人に招
待された。ガーズデン市には洋
品店を経営している人、ひよこ
の鑑別士、米軍人と結婚した女
性たちがたくさんいて、韓国人
敎會も二つあつた。こんな田舎
にも韓国人が住んでいることを
知りおどろいた。ところがクリ
スマス休みには、ミシシッピ
州ガルボート市へ行って二週間
バプテスト敎會の牧師の家に民
泊した。ガルボート市はメキシ
コ湾に沿ってアメリカの最南端
ともいえるところである。二週
間もほとんど過ぎたある日、韓
国人がいろいろ話を聞いた
ことがあるが、あつてみたいか
といわれた時、ほんとうにこん
なところにも韓国人がいるのだ
かと疑つた。ところが、そこに



ビロックシ韓国人敎會の宋雄鎬牧師と家族
(ビロックシ・ミシシッピ)

も韓国人がいて韓国人敎會が一
つあつた。私はその韓国人牧
師に招かれて異國で楽しい正月
をすごした。

フロリダ州オーランドへ自動
車で旅行した時、オーランド市
で、早めの夕食をすましてモテ
ルへ帰る途中、自動車が動か
なくなった。見知らぬ土地で、言
葉も不自由とあつて不安であつ
た。モテルのマネジャー(台湾
出身で日本語も少しできた)と
相談して自動車の修理屋を紹
介してもらつた。そこへ行つたら
いろいろなことをいって、そし
て約二百ドルかかるといわれた
時、なによりもその修理代の高
いことにびっくりしてしまつた。
モテルに帰って、電話で先ず
敎會をめぐつてみた。そこには
いくつもの韓国人敎會の名前
があつたので、ひとりの韓国人
牧師と連絡がとれ、韓国人の修
理屋へ連れていってもらい十ド
ルで自動車をなおして無事旅行
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

アメリカには、韓国人が約八
十万人いるというが、ニューヨ
ークやロサンゼルスのみならず、

同胞のための活動拠点！
YMCA ホテル
●シングル45・ツイン10
●会議室 ●大ホール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03)233-0611(代)

韓国基督教100周年記念宣敎大会参加団募集

韓国敎會宣敎100周年宣敎大会に 参加하실 分을 다음과 같이 募集합니다.

日 時: 1984年8月15日(水) ~ 19日(日)
大 會 場: 韓国 여의도 広場
宿 泊: 瑞麟호텔 (서울시종로구서린동149)
申込締切: 1984年7月10日(火)
申込方法: 全国各敎會에 보낸 申込書에 기입하여
敎會를 통해 한다.
其他事項: ①具體的出發日字 및 内容에 대해서 福
音新聞, 各敎會를 통해 連絡한다.

②各敎會는 人員數를 모아서 參加書와 費用을
下記로 보낼것. (〒662 西宮市芦原町4-19 在
日大韓基督教西宮敎會) 〈參加費-太陽神戶銀行
西宮北口支店 金得三普通口座 3146294〉
③旅券과 再入国手続은 個人이 各各 準備할것.
④ 기록된 參加費는 1人당 參加費이며 숙박비
30,000円 食事代 18,000円(9食)입니다.
총회 전도국

出發地와 費用

費用 出發地	團體往復(出・歸國時團體)	
	出國團體	歸國時 自由
東 京	49,000 (航空)	97,000 (宿泊費 포함)
	75,800 (//)	123,000 (//)
名 古 屋	47,000 (//)	95,000 (//)
	68,200 (//)	116,200 (//)
大 阪	42,000 (//)	90,000 (//)
	60,000 (//)	108,000 (//)
福 岡	34,000 (//)	82,000 (//)
	44,100 (//)	92,000 (//)

福岡鉄筋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潤 錫
(福岡敎會 執事)

自宅 福岡市博多区千代5丁目5-17
電 話 (641) 4085番

製銅原料・非鉄金属

武 本 商 会

代表者 裴 基 秀
(宇部敎會 長老)

〒759-20 宇部市厚南区中野三之割十区
電 話 0836(41)1768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榮 吉
(福岡敎會 執事)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番